

HEADLINE NEWS

‘All-in-One’ 교통카드 도입 추진 (런던)

지하철 교통 카드, 현금 카드, 신용 카드 등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All-in-One’ 카드가 영국 런던市에 도입될 예정이다. 市는 우선, 1단계 조치로 2002년까지 40만명에 달하는 시즌 티켓 (Season Ticket) 소지자들에게 새로운 ‘All-in-One’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 카드는 교통요금 결제, 현금 입출금, 물품 구매, 신용거래 등에 두루 사용할 수 있다.

市는 2단계로, 시즌 티켓 소지자뿐 아니라 모든 일반 통행자들에게까지 발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예상 수요는 2백만명 수준으로 잡고 있다. 승객들은 필요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충전 또는 입금할 수 있으며, 카드 분실시 기존 카드의 잔액은 새로운 카드로 그대로 옮겨지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METRO, 2001. 12. 6)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땅을 파지 않고 하수관·가스관을 단시간에 매설 (동경)
- ② 都有地를 민간에 매각해 IT산업 거점으로 조성 (동경)

도시환경

- ③ 지역사회의 ‘환경건강’ 평가 실시 (미국: 캔자스市)
- ④ 쓰레기 수거사업의 민영화 추진 (독일: 풀다市)
- ⑤ 수자원 오염방지대책 강화 (북경)

도시교통

- ⑥ 연말연시 무료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런던 / 로스 앤젤레스)
- ⑦ 지하철 홍보용 교통수단 경진대회 개최 (런던)
- ⑧ 녹색교통촉진을 위한 ‘미스터 자전거’ 영입 (파리)
- ⑨ 「개인통행 보고서」 발표 (런던)
- ⑩ 「교통사고 대책반」 설치·운영해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여 (교토)

사회복지

- ⑪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대폭 확충 추진 (밴쿠버)

행정재정

- ⑫ 민간기업이 市행정에 대한 평가 실시 (북경)
- ⑬ 호텔에 첨단정보통신망 구축해 외국인고객 유치 (동경)

① 땅을 파지 않고 하수관·가스관을 단시간에 매설 (동경)

일본 東京都의 한 토목공사용 유압기계 제조업체는 땅에 구멍을 뚫어 하수관이나 가스관 등을 매설할 수 있도록 하는 소형장치를 최근 개발했다. 지금까지는 관을 매설할 때 도로통행을 금지시킨 후 땅을 파서 관을 매설하고, 매설한 후에는 흙을 덮어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구멍을 판 후 흙을 다시 덮을 필요가 없으며, 단시간에 공사를 끝낼 수 있어 도로통행을 금지시킬 필요도 없다. 주로 하수관을 지관(支管)에서 각 가정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며, 장치의 본체 크기는 세로 90cm, 가로 12cm, 높이 약 70cm 정도이다.

앞부분에 굴착용 칼을 장착한 강철관을 본체내장 모터로 회전시켜 땅속을 파 들어간다. 이 때 발생하는 흙은 물을 뿌려서 강철관을 통해 배출한다. 최대 10m까지 여러 개의 강철관을 이어 붙일 수 있다. 5m 구간 공사일 경우, 대략 3시간 정도 소요된다. 현재 이 장치의 가격은 대당 약 650만엔 수준이다.

(日本經濟新聞, 2001. 12. 13)

② 都有地를 민간에 매각해 IT산업 거점으로 조성 (동경)

일본 東京都는 아키하바라(秋葉原)역 앞 약 1.5ha 규모의 都有地를 매각, IT산업의 세계적 거점지역으로 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都는 이를 위해 2002년 1월까지 사업계획안을 공모하고, 사업계획과 토지매입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02년 2월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都가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은 '아키하바라 IT센터' 계획안에 따르면, 이 센터는 최첨단 IT기기 전시 등을 통한 집객(集客) 기능,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대학원·연구실 설치 등 산학협동 기능, 지역기업·주민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IT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都는 3월까지 도시계획·IT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2005년까지 IT센터를 완성해야 한다. (日本經濟新聞, 2001. 12. 8)

3 지역사회의 ‘환경건강’ 평가 실시 (미국 : 캔자스市)

미국 캔자스(Kansas)시 보건당국은 향후 2~3년에 걸쳐 지역사회 ‘환경건강’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市는 이 평가를 통해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기에 처한 인구 파악, 주요 환경관련 자료 수집, 지역의 ‘환경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계획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市는 주거지, 사업소, 학교, 여가시설, 주민 건강 등과 환경과의 연계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이 현재 위험에 처해 있는지, 위험에 처할 것 같은 상황인지, 아니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조사하고, 주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市보건당국은 앞으로 ‘환경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www.kcmo.org/cco.nsf/49316057a17205018625677000706ebf/13aa2a0f6fcbb2c886256ad40054e809?OpenDocument)

4 쓰레기 수거사업의 민영화 추진 (독일 : 풀다市)

독일 풀다(Fulda)시는 지난해 쓰레기 수거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 쓰레기 수거비용이 20%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풀다市가 속해 있는 헤센州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거비용이다. 市는 앞으로도 市民들이 예전에 비해 매년 최고 60마르크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市는 쓰레기 수거사업을 담당할 2개 업체를 지난해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는데, 이 업체들이 향후 10년간 쓰레기 수거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 업체들은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폐쓰레기와 기타 재활용 쓰레기도 수거할 계획이다. 市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담당했던 환경미화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으며, 6대의 수거차량도 민간업체에 판매했다.

(Frankfurter Rundschau, 2001. 12. 6)

5] 수자원 오염방지대책 강화 (북경)

중국 北京市는 1인당 수자원이 현재 300m³로서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오염상태도 매우 심각함에 따라,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市환경보호국은, 인구가 밀집한 초대형 도시인 北京市의 현재 1인당 수자원 보유량이 중국 전체 평균의 1/8, 세계 평균의 1/30로서 국제기준 1,000m³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자원·환경간의 불일치와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市에 따르면, 지난해에 관측한 79개 하천구간 중 수질기준을 만족한 곳은 41.6%에 불과했으며, 그 외 강물은 심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의 주된 원인은 상류 일대의 물 부족과 공업폐수 및 생활오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8년에 개최하는 올림픽 유치 캠페인시 2007년까지 122억 위안(약 15억 달러)을 들여 20개의 환경정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 北京市는 조만간 수자원 오염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차이나 넷, 2001. 12. 4)

6] 연말연시에 무료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런던 / 로스앤젤레스)

영국 런던市와 미국 로스앤젤레스市는 연말연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저녁부터 올해 1월 1일 새벽까지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했다. 런던市 교통국은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 45분부터 올해 1월 1일 오전 4시 30분까지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市는 7년 전부터 12월 24일과 12월 31일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시민들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왔다. 이는 연말연시 시민들의 친교모임을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지원하고, 음주를 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Metro, 2001, 12. 21) (Los Angeles Times, 2001. 12. 21)

7] 지하철 홍보용 교통수단 경진대회 개최 (런던)

1999년 런던지하철 Jubilee선 개통을 기념해서 런던시가 만든 「Jubilee Challenge 대회」는 일종의 교통수단간 경진대회이다. 市교통당국이 이 대회를 창설하게 된 배경에는 지하철이 런던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임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 2001년 개최된 제2회 대회에서는 런던 교통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오토바이를 운전한 40대 남자가 5.6마일 코스를 15분 4초로 통과, 19분 9초가 소요된 지하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하철의 순(純)운행시간은 13분이었으나, 환승하는 데 6분 9초가 소요되어 2위에 머물렀다. 제1회 대회에서는 택시가 1위를 차지했다.

(Metro, 2001, 12. 20)

8] 녹색교통촉진을 위한 ‘미스터 자전거’ 영입 (파리)

프랑스 파리시장은 무공해, 작은 공간 활용, 도시 적합성 등의 장점을 지닌 자전거 정책 개발을 위해 자전거도시의 표본인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서 ‘자전거 전문가’로 활약했던 장뤽 마살을 ‘미스터 자전거’로 지명했다. 그는 앞으로 市도로교통국에서 획기적인 자전거 정책 수립·집행의 책임을 맡는다. 현재 파리시는 수년 내에 자전거와 도시가 일체를 이루는 ‘자전거 천국’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www.paris-france.org/parisweb/FR/HOTEL/CONFERENCES/mandature_actuelle/COM16122001.htm)

9 「개인통행 보고서」 발표 (런던)

현재 영국 런던에서는 교통관련기관이 발표한 「개인통행보고서(Personal Travel Report)」를 통해 지난 10년간 개인의 통행행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의 특징은 통근교통량이 지난 10년간 약 16% 증가했다는 점이다(표 참조). 이외에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40% 정도 통행시간이 길고, 연령별로는 49세를 기점으로 통행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통행 항목	1989~1991	1998~2000
1일평균 통행거리	11.5km	13.4km
초등학교 차량통근량	27%	36%
중고교 차량통근량	14%	19%
도보 통행	1,100회/년	800회/년

(Local Transport Today, 330호)

10 「교통사고 대책반」 설치·운영해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여 (교토)

일본 교토(京都)시는 ‘교통사고 다발도시’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대책반을 경찰청과 공동으로 설치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관련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1998년에 비해 약 50%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일본 교통사고 다발지점 10’에 교토시의 8개 지역이 포함되었다는 한 조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책반을 설치했다. 교토시의 사례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최고일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나 카메룬보다도 더 높은 우리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日本 交通工學, 제36권 제4호)

④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대폭 확충 추진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Vancouver)시는 시민의 약 2%, 운전면허 소지자의 약 3.5%가 장애인 또는 이동불편자인 데 반해, 市の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확보기준은 해당시설 주차공간의 1%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규정을 전면 개정해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市는 우선, 양로·요양시설은 현재 1% 기준보다 3~4배 이상, 기타 공중이용 시설인 교회·의료시설·판매시설·아파트 등은 2배 이상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의 넓이 기준도 현재의 폭 3.7m, 높이 2m에서 폭 4m, 높이 2.3m로 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차공간에의 접근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장애물을 정리하고, 요금정산소, 매표소, 출입구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며, 기존 건물도 이 기준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을 市는 권장하고 있다.

(www.city.vancouver.bc.ca/engsvcs/parking/disability.htm)

④ 민간기업이 市행정에 대한 평가 실시 (북경)

중국 北京市 소재 국영 및 민간기업, 첨단산업부문 기업 등 1,000개 기업 대표들이 지난해 12월 海澱區 정부의 29개 직능 부문에 대한 행정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가 실시된 부문은公安, 경제, 세무, 주택 관리 등 주로 법 집행이나 경제관리 분야이다.

평가 내용은 법규정 집행, 청렴성, 행정정보 공개, 규범 준수, 민원 서비스 태도, 업무 효율성 등 5개 항목으로서, 각 항목마다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의 4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海澱區에서는 기업의 행정 평가가 이번이 4번째이다. 2000년에 실시한 평가 결과, 주택 관리국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상여금이 삭감되었는데, 이후 인력 배치 및 업무 등이 재조정되었다.

(인민망 일본어판, 2001. 12. 12)

⑧ 호텔에 첨단정보통신망 설치해 외국인고객 유치 (동경)

東京을 중심으로 일본 수도권 지역의 도시형 호텔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대(對)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외국인고객을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이들 도시형 호텔들은 객실이나 연회장에 고속대용량 통신회선을 설치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유형의 기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복수의 케이블을 제공하는 등 ‘호텔의 IT화’를 통해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신주쿠(新宿)의 프라자호텔은 객실과 연회장에 고속회선을 설치해 고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통신이용료는 호텔이 부담하지만, 자회사의 설비를 도입하고 통신요금을 할인 받아 설치 및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호텔은 고속회선의 무료 이용 이후 멤버십 가입 외국인이 약 1,700명 증가했다. 파레스호텔도 첨단정보통신관련 하드웨어를 구축함으로써 회의 및 IT관련 세미나 유치건수가 전년도 동기(同期) 대비 30~40% 증가해 ‘IT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오타니호텔의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LAN 카드를 무료로 빌려주는 등의 부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2001. 12. 7)